Journal of Senso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1, No. 1 (2022) pp. 41-44 http://dx.doi.org/10.46670/JSST.2022.31.1.41 pISSN 1225-5475/eISSN 2093-7563

바이오 센서 적용을 위한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의 게이트 열화 현상 분석 백지민¹·김대현^{1,+}

Constant Voltage Stress (CVS) and Hot Carrier Injection (HCI) Degradations of Vertical Double-date InGaAs TFETs for Bio Sensor Applications

Ji-Min Baek¹ and Dae-Hyun Kim^{1,+}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vertical double-gate (DG) InGaAs tunnel field-effect-transistors (TFETs) with $Al_2O_3/HfO_2 = 1/5$ nm bi-layer gate dielectric by employing a top-down approach. The device exhibited excellent characteristics including a minimum subthreshold swing of 60 mV/decade, a maximum transconductance of 141 µS/µm, and an on/off current ratio of over 10^3 at 20°C. Although the TFETs were fabricated using a dry etch-based top-down approach, the values of DIBL and hysteresis were as low as 40 mV/V and below 10 mV, respectively.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constant voltage and hot carrier injection stress on the vertical DG InGaAs TFET, we have identified the dominant charge trapping mechanism in TFETs.

Keywords: Bio sensor, Tunneling, TFET, InGaAs, Sub-thermal subthreshold swing, Reliability, CVS, HCI

1.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위험 요인들 이 발생해왔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흑사병, 독 감 등의 고 전염성 바이러스들은 인간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하 여,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을 대비하여 생물화학무기를 개발 중이며, 해당 무기는 민간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포격 지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특 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생물학적 위험 요인들을 탐지하는 기술은 인간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군수에서 활용되는 생물학적 요인의 탐지뿐 아니라, 질병의 검진, 기상 관측 등에서의 활용을 위해서 고민감도를 가지는 전 계 효과 트랜지스터 (Field-effect-transistor, FET) 기반 바이오 센서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4]. 수 십 년 동안,실리콘 (Si)기반 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 (Complementary

¹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dae-hyun.kim@ee.knu.ac.kr

metal-oxide-semiconductor, CMOS)의 구조적 혁신 및 소자 소 형화를 통해 바이오 센서의 성능과 집적도가 크게 발전하였지 만,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transistor, MOSFETs)의 동작 원리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다음 두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① 상온 에서 문턱 전압 이하 스윙 (Subthreshold Swing)의 최소값이 60 mV/decade이며, 이로 인해 공급 전압 (Supply voltage, V_{DD})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② 소자의 소형화로 인해 단채널 효과 (Short channel effect, SCE)가 발생하여 회로 설계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로써, 터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TFETs)가 고려되고 있다. 열전자 방출 (Thermionic emission, TE)에 의해 전도대역의 전자가 이동함으 로써 전류가 생성되는 MOSFET과는 다르게, TFET은 가전자대 역에서 전도대역으로의 터널링 (Band-to-band-tunneling, BTBT) 을 통해 전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스윙을 60 mV/decade 이하로 감소시키고, V_{DD}를 0.3 V이하로 낮춤으로써 바이오 센서에 활 용하였을 때, 모듈의 소비 전력을 최소화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5,6].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작 전류가 소스 (Source)와 채널 (Channel) 사이에 발생하는 터널링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 에, SCE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7, 8].

FET 기반 바이오센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소자 특성 과 동시에, 외부 자극에 의한 특성 변화 및 소자의 수명을 통칭 하는 소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소자의 신뢰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는 문턱 전압 (Threshold voltage, V_T), 동작 전

⁽Received: Oct. 19, 2021, Revised: Jan. 4, 2022, Accepted: Jan. 14,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류, 스윙, 트랜스컨덕턴스 (Trans-conductance, g_m) 등이 있으며, 오랜 시간 동작 시에 발생하는 해당 지표들의 변화는 센서의 오 동작 또는 고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7,9,10].

본 논문에서는 Si 대비 높은 동작 전류 (I_{ON}) 를 얻을 수 있는 InGaAs를 채널 물질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최소 스윙 $(S_{min}) =$ 60 mV/decade, 동작 전류 $(I_{ON}) = 7.52$ mA/mm, 최대 트랜스컨 덕턴스 $(g_{m_max}) = 141$ mS/mm 특성을 가지는 수직형 이중게이 트 InGaAs TFET (Vertical Double-Gate (DG) InGaAs TFETs)을 하향식 공정 방식으로 제작하고, constant voltage stress (CVS) 및 hot carrier injection (HCI)에 의한 핵심 지표의 변화를 관측 함으로써, 지배적인 트래핑 매커니즘을 규명하였다.

2. 소자 공정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 제작을 위한 에피층은 Semiinsulation InP 기판 상에 분자-빔-에피택시 (Molecular beam epitaxy, MBE) 방식으로 성장되었다. 에피층은 50 nm 두께 n+ In_{0.53}Ga_{0.47}As (Si 도핑, 5 × 10¹⁹ cm⁻³), 30 nm 두께 n+ In_{0.53}Ga_{0.47}As 드레인 영역(Si 도핑, 1 × 10¹⁷ cm⁻³), 90 nm 두께 진성 In_{0.53}Ga_{0.47}As 채널 영역, 10 nm 두께 진성 In_{0.8}Ga_{0.2}As 포켓 영역, 300 nm 두 께 p+ In_{0.53}Ga_{0.47}As 소스 영역(Be 도핑, 5 × 10¹⁹ cm⁻³) 및 300 nm 두께 진성 In_{0.53}Al_{0.48}As 완충층으로 구성된다.

소자 제작은 본 연구실에서 기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방식으 로 진행되었는데, 식각된 InGaAs 측벽과 고 유전율 게이트 절 연막 (High-k) 사이의 dangling bond에 의한 trap을 완화시키기 위해 절연막 증착 전에 21% 황화 암모늄 ((NH₄)₂S) 용액에 10 분간 처리한 후 원자층 증착 장비 (Atomic-layer-deposition, ALD) 를 이용하여 $Al_2O_3/HfO_2 = 1/5$ nm의 이중 게이트 절연막을 형 성하였다 [11].

3. 결과 및 고찰

3.1 제작된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의 DC 특성

Fig. 1은 제작된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 소자의 상 온에서의 문턱전압이하 (Subthreshold) 특성을 보여준다. Fig. 1 (b)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작된 소자는 drain-to-source voltage (V_{DS}) = 50 mV 일 때, 60 mV/decade의 스윙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는 MOSFET 소자의 이론적 한계수치와 동일하다. 또한, V_{DS} = 300 mV에서 I_{ON} = 7.52 mA/mm (I_{ON} = I_D @ V_{GS} = V_T + 0.2 V), g_{m_max} = 141 mS/mm, 드레인 유도 장벽 감소 (Drain-inducedbarrier-lowering, DIBL) = 40 mV/V의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V_{DD} = 0.3 V 일 때 (V_{DS} = DV_{GS} = 0.3 V), ON/OFF 전류 비율이 10³



Fig. 1. (a) Subthreshold characteristics and (b) subthreshold swing vs. drain current of the fabricated vertical DG InGaAs TFETs.



Fig. 2. Hysteresis behaviors of the fabricated device.

이상의 값을 보였다. Fig. 2는 V_{DS} = 50, 300 mV 일 때의 이력 현상 (hysteresis)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값이 20 mV, 10 mV 이 하로 굉장히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정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에서의 소자 출력 (Output) 특성 을 Fig. 3에 표현하였다. 정방향 전압에서는 BTBT에 의해 전류 가 발생하고, V_{DS} 가 증가함에 따라 I_D 가 포화되는 특성을 보인 다. 이는 게이트 길이 (L_G) 가 100 nm로 매우 작음에도 SCE가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삽화와 같이, 제작된 수직형 이중게 이트 InGaAs TFET 소자는 역방향 전압에서 부성 미분 저항 (Negative differential resistance, NDR) 특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Constant Voltage Stress (CVS) and Hot Carrier Injection (HCI) Degradations of Vertical Double-date InGaAs TFETs for Bio Sensor Applications



Fig. 3.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vertical DG InGaAs TFETs. (Inset shows the enlarged current behavior under reverse bias conditions)

는 전류 발생원이 BTBT에서 TE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

3.2 CVS 및 HCI에 의한 게이트 노화 현상 평가

Fig. 4는 고 유전율 게이트 절연막을 사용하여 제작된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 소자의 CVS 및 HCI 스트레스에 따 른 특성 변화를 보여준다. 1/10/100/300/ 500/1000/2000/4000 초 의 스트레스 인가 후 0 V의 회복 전압을 동일한 시간 간격으 로 인가하여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CVS 조건에서 캐리어 (carrier)는 매우 짧은 스트레스 시간 동안, 계면에 가까운 게이 트 산화물의 얕은 부분 (fast trap)에 쉽게 트래핑 되며, 급격한 특성 변화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스트레스 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깊은 부분 (slow trap)에 트래핑이 발생하고 특성을 천천히 변화시킨다 (Fig. 4 (a)) [12-14]. HCI 조건에서는 게이트 산화 물 – 채널 사이의 트랩뿐 아니라, FET의 터널 접합 부분의 트 랩의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TFET의 터널링 접합 부분 (소스-채널 접합)의 게이트 산화물 – 채널의 계면 트랩에 기인한다 [15,16]. 결과적으로, HCI 스트레스 동안 VT 열화는 터널링 접합 부분의 수직/수평 전기장에 의한 영구적 손상과, 게이트 전압에 의해 형성되는 수평 전기장에 의한 게이트 산화 물 및 계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전하 주입의 복수 원인해 인 해 발생한다. VT 변화의 시간 의존성은, DVT ~ t'의 멱함수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종속도를 나타내는 지수 n의 값이 HCI 조 건에서 0.14인 반면, CVS 조건에서는 0.2에서 0.23 사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b)). 이는 CVS 조건과 HCI 조건에서 의 지배적인 전하 트래핑 매커니즘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데, HCI 조건에서 터널링 접합 부분의 결함이 크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시간에 따른 스윙 열화 양상을 Fig. 4 (c) 에 나타내었다. 스트레스에 의해 열화된 스윙은 회복을 통해 어 느정도 회복되지만, 게이트 산화물의 영구적 손상으로 인해 완 전히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a) ΔV_T with stress time, (b) stress time dependence of ΔV_T , and (c) swing degradation for vertical DG InGaAs TFETs under CVS and HCI stress.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공정 방식으로 수직형 이중게이트 InGaAs TFET을 제작하고, CVS, HCI 스트레스에 대한 트랩 거 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TFET 소자는 MOSFET의 열적 한계 스윙인 60 mV/decade의 최소 문턱전압이하 스윙과 141 mS/mm의 높은 트랜스컨덕턴스 값을 보여주었다. 우수한 특성 을 가지는 TFET 소자에 CVS 및 HCI 스트레스를 인가하고, TFET 동작 시 터널링 접합 부분의 계면 트래핑이 주요한 특성 열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 년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 (NRF-2017M3A7B4049517).

REFERENCES

- X. P. A. Gao, G. Zheng, and C. M. Lieber, "Subthreshold Regime has the Optimal Sensitivity for Nanowire FET Biosensors", *Nano Lett.*, Vol. 10, No. 2, pp. 547-552, 2010.
- [2] A. Gao, N. Lu, P. Dai, T. Li, H. Pei, X. Gao, Y. Gong, Y. Wang, and C. Fan, "Silicon-Nanowire-Based CMOS-Compatible Field-Effect Transistor Nanosensors for Ultrasensitive Electrical Detection of Nucleic Acids", *Nano Lett.*, Vol. 11, No. 9, pp. 3974-3978, 2011.
- [3] G. Zheng, F. Patolsky, Y. Cui, W. U. Wang, and C. M. Lieber, "Multiplexed electrical detection of cancer markers with nanowire sensor arrays", *Nat. Biotechnol.*, Vol. 23, No. 10, pp. 1294-1301, 2005.
- [4] A. Gao, N. Lu, Y. Wang, and T. Li, "Robust ultrasensitive tunneling-FET biosensor for point-of-care diagnostics", *Sci. Rep.*, Vol. 6, No. 1, pp. 1-9, 2016.
- [5] A. M. Ionescu and H. Riel, "Tunnel field-effect transistors as energy-efficient electronic switches", *Nature*, Vol. 479, No. 7373, pp. 329–337, 2011.
- [6] A. C. Seabaugh and Q. Zhang, "Low-voltage tunnel transistors for beyond CMOS logic", *Proc. IEEE*, Vol. 98, No. 12, pp. 2095–2110, 2010.
- [7] N. N. Reddy and D. K. Panda, "A Comprehensive Review on Tunnel Field-Effect Transistor (TFET) Based Biosensors: Recent Advances and Future Prospects on Device Structure and Sensitivity", *Silicon*, Vol 13, pp. 3085-3100, 2021.
- [8] S. Kanungo, S. Chattopadhyay, P. S. Gupta, K. Sinha, and H. Rahaman, "Study and Analysis of the Effects of SiGe Source and Pocket-Doped Channel on Sensing Performance

of Dielectrically Modulated Tunnel FET-Based Biosensors", *IEEE Trans. Electron Devices*, Vol. 63, No. 6, pp. 2589–2596, 2016.

- [9] D. Sarkar and K. Banerjee, "Fundamental Limitations of Conventional-FET Biosensors: Quantum-Mechanical-Tunneling to the Rescue", in *Proc. DRC*, pp. 83-84, 2012.
- [10] P. R. Nair and M. A. Alam, "Screening-Limited Response of NanoBiosensors", *Nano Lett.*, Vol. 8, No. 5, pp. 1281-1285, 2008.
- [11] M. Yokoyama, N. Taoka, R. Suzuki, O. Ichikawa, H. Yamada, N. Fukuhara, M. Hata, M. Sugiyama, Y. Nakano, M. Takenaka, and S. Takagi, "Sulfur cleaning for (100), (111)A, and (111)B InGaAs surfaces with In content of 0.53 and 0.70 and their Al₂O₃/InGaAs MOS interface properties", in *IPRM*, pp. 167-170, 2012.
- [12] Y. Xuan, Y. Q. Wu and P. D. Ye, "High-Performance Inversion-Type Enhancement-Mode InGaAs MOSFET With Maximum Drain Current Exceeding 1 A/mm", *IEEE Electron Device Lett.*, Vol. 29, No. 4, pp 294-296, 2008.
- [13] J. Franco, A. Alian, B. Kaczer, D. Lin, T. Ivanov, A. Pourghaderi, K. Martens, Y. Mols, D. Zhou, N. Waldron, S. Sioncke, T. Kauerauf, N. Collaert, A. Thean, M. Heyns1, and G. Groeseneken1, "Suitability of high-k gate oxides for III-V devices: a PBTI study in In_{0.53}Ga_{0.47}As devices with Al₂O₃", in *IEEE Proc. IRPS*, pp.6A.2.1-6A.2.6, 2014.
- [14] Y. Yuan, B. Yu, J. Ahn, P. C. McIntyre, P. M. Asbeck, M. J. W. Rodwell, and Y. Taur, "A Distributed Bulk-Oxide Trap Model for Al₂O₃ InGaAs MOS Devices", *IEEE Trans. Electron Devices*, Vol. 59, No. 8, pp. 2100–2106, 2012.
- [15] G. F. Jiao, Z. X. Chen, H. Y. Yu, X. Y. Huang, D. M. Huang, N. Singh, G Q. Lo, D. L. Kwong, M.-F. Li, "New Degradation Mechanisms and Reliability Performance in Tunneling Field Effect Transistors", in *IEDM Tech. Dig.*, pp. 1-4, 2009.
- [16] S. C. Kang, D. Lim, S. J. Kang, S. K. Lee, C. Choi, D. S. Lee, and B. H. Lee, "Hot-Carrier Degradation Estimation of a Silicon-on-Insulator Tunneling FET Using Ambipolar Characteristics", *IEEE Electron Device Lett.*, Vol. 40, No. 11, pp. 1716-1719, 2019.